

# “필수 돌봄 분야 재정 우선 돌입”

### 전주시장직 인수위, ‘시민돌봄 책임 도시 실현’ 돌봄·복지정책 로드맵 마련 속도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시위원회가 시민돌봄 책임 도시 실현을 위한 돌봄·복지정책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 산하 돌봄·복지분과(위원장 고선미)는 최근 민선 9기 돌봄·복지분야 공약 22건을 집중 검토하며 ‘출생부터 생애 말기까지, 촘촘한 돌봄·복지도시 전주’라는 정책 방향에 맞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봄·복지분과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돌봄·복지 정책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필

수 돌봄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검토 대상 공약은 출산·양육 지원을 비롯해 청소년 성장 지원 청년 자립, 어르신 돌봄과 일자리, 여성 안전과 권익 보호, 장애인 이동권 및 건강권 보장, 1인 가구 고립 예방 등 시민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급하는 ‘전주 아이꿈 수당’,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의 단계적 도입,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분야에서는 스마트 시니어 돌봄 시스템 구축과 병행 동행을 넘어서는 일상생활 안심동행 서비스 제공, 공공형 및 사회참여형 일자리 확대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또 여성과 장애인 분야에서는 성평등 전문행정 도입, 성범죄·스트리트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 중심의 무장애 인프라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시민 기본권 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

이다. 돌봄·복지분과는 앞으로 공약별 예산 규모와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과 실행력을 갖춘 정책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고선미 위원장은 “복지는 행정 비용이 아니라 전주의 정주 여건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투자”라며 “아동과 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 1인 가구를 각각 분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출생부터 생애 말기까지 시민의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피는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과 복지가 생활 현장에서 끊기지 않고 촘촘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돌봄 책임 도시’ 실현을 위한 공약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 도의회, 제13대 당선자 상견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자 44명을 대상으로 의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시작을 앞두고 당선자들이 향후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안내받기 위해 마련됐다.

당선자들은 각자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 각 분야에서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설명회에서는 유용원 국가청렴위원 교육원 교수가 공무원의 출장기준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주요 제도를 안내했다. 또 이창철 용인시 기획예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후원회 설립 등 정치자금법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문승우 제12대 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3대 의회는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당선인들의 자애와 열정이 모인다면 도민께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치가 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신뢰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한 뒤 “오늘 설명회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제10대 남원시의회 당선인

### 오리엔테이션… 의정활동 준비

남원시의회 관계자는 23일, 제10대 의원 당선인 18명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의정활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7월 1일 임기 시작을 앞둔 당선인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공직윤리 확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10대 남원시의회 의원 당선인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공직윤리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정책지원관 제도와 의정비 집행 기준 등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을 상세히 안내하며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제10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향후 회기 운영 계획과 원 구성 일정 등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필요한 필수 의사사무를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3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제13대 도의회 의원당선자 44명을 대상으로 의정 설명회를 연 가운데, 문승우 제12대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 “기업 유치, 전북의 미래 유치하는 일”

### ‘오늘 퇴임’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4일 퇴임식을 가진 후 1년간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만나서 공직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 실장은 30여 년의 기나긴 공직 생활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해외 공관을 두루 경험하며 지방과 중앙의 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행정 전문가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9조 원 새만금 투자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을 쏟아 부은 바 있다.

김 실장은 1967년 군산에서 출생하여 군산제일중, 군산제일고와 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교통부 산하 중앙해안산업원에서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2년간의 수험생활 끝에 1989년 지방고시에 합격했다. 당시 선발 인원만 두 명에 불과했던 어려운 시험이었다.



삶이었다.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미국 뉴욕 총영사관에서 동포 영사로 근무했던 시절이다.

당시 뉴욕에서는 한인 상인과 흑인 사회 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김 실장은 한인 단체와 함께 흑인 학생 장학사업과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연방 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가장 보람 있는 공직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전북도 환경복지국장 시절에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수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했던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와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현재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실장은 최근 성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9조 원 새만금 투자 유치를 꼽았다.

그는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그리고 미래를 함께 유치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행정가로서의 삶 외에도 그는 네권의 저서를 출간한 저술가이기도 하다. 비빔 공직생활 속에서 꾸준히 글을 써온 그는 “글쓰기는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그는 주저 없이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힘없는 국민의 편에서 일하며 그분들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일했던 추억이 당시에는 정말 힘이 들었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반복적인 홍수 피해 줄인다… 지방하천 국가관리 책임 강화

###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원·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등 담겨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기후위기로 인한 반복적인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거나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다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관리 수준

이 낮고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 방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양보·배려의 정치로 하나된 도의회’

### 정중복 도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3대 전반기 위원 구성이 순조롭게 마무리돼 22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선정됐다.

의장 선거를 제외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들이 대부분 추대 형식으로 정리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모처럼 보기 드문 화합의 정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정중복 의원이 있다.

제13대 도의회는 전체 44명의 의원 가운데 초선 의원이 25명에 달한다. 시·군의회 의원을 했던 의원은 있지만 도의회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위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됐지만, 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초선 의원들을 위한 의정활동 안내와 23일 오후부터 연수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안정적인 도의회 적응을 돕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도의회는 경쟁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곳”이라며 “동료 의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량을 보여준 덕분에 원만한 위원 구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실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전문성, 의정활동 계획 등을 고려해 서로 양보하며 모두를 만족하지는 않지만 거의 후보를 단일화했다. 그는 이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다.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결코 쉽지 않다. 의원 개인의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율해야 하고 때로는 양보를 요청하고 설득해야 한다.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불만도 감수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배정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며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가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대화가 필요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갈등보다는 소통을 선택했다. 작권보다는 실력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냐 해서 행정을 무조건 감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과 새 도정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월말 원보이스 정신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 하계올림픽 성공 개최 첫걸음

### 도지사직 인수위 특위, 전주월드컵경기장 등 찾아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하계올림픽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원)가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서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계올림픽특별위원회 최형원 위원장과 위원들은 23일 올림픽 주경기장 예정지인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현장, 전주 실내체육관 신축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주요 시설 추진 상황과 국제 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향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에 대비해 경기장별 국제 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이한 민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개·폐회식과 축구 결승전 개최를 위한 관망석 증설 계획을 청취했다. 현재 3만 5,130석 규모인 경기장을 5만 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들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안전 구역과 경기장

모서리 공간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확장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전주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현장을 방문한 특위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공정 상황을 확인하고 국제 경기 규격에 부합하는 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림픽 이후에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인 전주 실내체육관 신축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현재 40% 수준의 공진률을 확인하며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최형원 위원장은 “전주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북이 세계적 수준의 올림픽 개최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 여성·돌봄 공약 구체화 박차

### 도지사직 인수위 도민행복분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도민행복분과(분과위원장 정정일)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약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민행복분과 정정일 위원장과 위원들은 23일 전북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여성·가족 정책 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전북형 무인업 3종 세트’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세부적으로는 △3040 구직·고용 패키지 △전북형 리턴십 테크 인턴제 △경력 보유 인정제 및 경력이음기여금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들 로고아웃 가시서비스 지원 △전북형 찾아가는 돌봄 △365 긴급 돌봄 토크 운영 등 생활 밀착형 돌봄 정책도 함께 검토됐다.

참석자들은 성장동력 근로환경 조성과 함께 아이 돌봄 초등 돌봄, 긴급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주말 돌봄까지 확대하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정일 위원장은 “여성과 돌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인수가 보장되어야 할 정책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돌봄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완성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행복분과는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복지·보건·여성·가족 분야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민선 9기 도정 핵심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